

#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부동산투기 의혹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배(53)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자기 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이

### 아파트2채·상가3채·오피스텔 등 18억대 부동산 보유...10억대 대출금 이경호 시의원 "39차례 전입, 2014~2016년 8차례 부동산·분양권매매" 정성배 후보자 "최근 4년간 부동산 구입 한 것은 없어...생계형" 해명

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이 쟁점이 됐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본인과 부인 등 소유의 아파트 2채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3채 등 18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대출금이 12억원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청문위원은 "총 39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2003년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전입한 후 한달여만에 광주 도산동으로 전입하고 그 이후로도 5개월~1년 사이 반복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2014년 9월 봉선동, 2014년 12월 각화동, 2015년 4월 양산동, 2015년 11월 화정동 등 2년도 안되는 기간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아 집중적으로 부동산 4곳을 매입했다"면서 "2016년 윤암동, 같은해 11월 학

동 아파트 분양권 매도 등 2014년부터 2년여동안 총 8차례 부동산 및 분양권 매매가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최근 4년간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없다"면서 "생계형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39차례 전입신고 중 일부는 도로명이 바뀐 것이 있고 장흥 직장일때 인구증가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입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월세 700만원이 들어오지만, 이

자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부와 겸직·연구논문 논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여부를 결정한다. 정 후보자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장흥노인전문요양원장을 지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을 정책연구기능 중심의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초대 원장 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동취재본부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

### 법무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법률들을 참고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로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체계에선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간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후속조치로 사공일가 TF를 통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검토한다. 서선욱기자

## 청해부대 82% 감염 '초유사태' 프랑스 드골 항모도 50% 미만 301명 중 247명 확진...확진자 비율 충격적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19일 발표된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파병국 현지 보건당국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19일 오전 8시까지 청해부대원 301명 중 247명이 확진됐다. 50명이 음성, 4명이 판정불가로 나타났다. 확진자 247명은 외국 군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에 비하면 인원 수 자체는 최고치는 아니다. 1000명 이상이 확진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전체 승조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이 82%라는 점은 충격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승조원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호였다. 지난해 4월 샤를 드골 호 승조원 2300여명 중 10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샤를 드골호도 청해부대처럼 임무 중단을 결정했다. 샤를 드골호는 나토 연합작전 일환으로 발



### 쏟아지는 중고 주방용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60%가 휴업 및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는 각종 중고 주방용품이 쏟아져 있다.

## '술 취해 길 가는 여성 추행' 지구대 경관 중징계

### 정직 3개월 의결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된 A경위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슬비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